

전자레인지에 삼일 이상

국어국문학과

18

1.

결국, 살아남은 것은 전자레인지였다. 여전히 집에 있을 고물을 떠올린 계기는 편의점에 놓인 하얀 전자레인지 때문이었다. 포장이 뜯긴 플라스틱 용기가 돌아가는 이분 삼십 초는 상념에 잠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가 방금 나온 집에서 더 오랜 시간을 버틴 전자레인지를 생각하기에 적격이었다. 그는 무려 이십 년을 버티다가 뛰쳐나왔다. 제 발로 나온 건 맞는데,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나가. 그의 친부는 그 말 한마디를 했고, 횡김에 내지른 고함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생략된 부분과 내재한 의미를 유추했다. 내 집에서. 친부는 명실상부한 집주인이었고, 그 점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그는 혈연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친부가 소유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을 명분이 없었다. 이 집은 내 소유고, 너는 내 자식이니. 친부는 가장이었다. 집안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졌고, 심기를 거스르면 당장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맞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고 죽을 수 있지만, 그게 저녁 시간 때 집이어서는 안 됐다. 길바닥에서 일어 죽더라도, 아비에게 맞아 죽기는 싫었다. 그게 죽기보다 더 싫었다.

땡.

경쾌하게 타이머가 울리며 전자레인지 내부는 캄캄해졌다. 사방에서 현란하게 비추는 조명도, 회전하는 무대도 작동을 멈추자 플라스틱 용기는 그를 맞이했다. 용기가 보관한 내용물이 전부 입속으로 들어가고 나자, 이제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 용기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서서 간단한 식사를 마친 그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생수를 들이켰다. 플라스틱은 씹지 않는다. 그냥 아주 작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진다고들 했다. 미세한 조각들이 어찌 먼 몸속에서 세포를 하나씩 죽이고 있는지도. 생수병을 내려놓고, 그는 알바생을 힐끗 곁눈질했다. 알바생이 매대를 닦느라 정신이 없이 바쁜 덕분에 그는 좀 더 머물러도 될 듯했다. 그는 친부의 집이 거대한 플라스틱 용기처럼 여겨져 실소를 머금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도, 편해서, 싸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니 최소한 전자레인지 정도는 되어야 했는데. 그 집에서 텔레비전이 바뀌고, 냉장고가 갈아 치워져도 전자레인지는 그대로였다. 전자파만 발사하는 것치고는 끈질긴 수명이었다. 붉은색 바탕에 고동색 버튼이 몇 개 달린 단순한 생김새였는데도. 전자제품도 유행을 타기 마련이니, 꽃무늬 밥솔이 유행했을 시절에 만들어졌을 법한 전자제품은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기능은 전자레인지가 발전해봐야 그저 그렇듯이 최신 제품과 비슷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을 포함한 수차례의 이사에도 살아남았다.

“서울로 이사할 거래.”

그의 모친이 오랜만에 걸어온 통화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반년 전이었다. 그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해서 1년 가까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즈음이었다. 애매하게 녹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불투명한 유리 조각처럼 거리를 장식하던 시기였다. 크리스마스라고 기숙사 로비에 설치한 트리도 꼬마전구도 어딘가로 치워지고, 새해 목표를 세우기도 민망할 만큼 어중간한 날이었다. 그때 통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

다. 모친은 그가 필요하거나 심심해서 다른 일이 없을 때만 그를 찾았으므로 그 외 중요한 얘기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통화를 마치고 그는 며칠을 의문에 휩싸인 채 지냈다. 도대체 왜.

“네 방 구하기도 힘들고, 동생도 중간에 전학 가느니 거기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편이 낫잖아.”

내년에도 기숙사에 산다는 보장은 없었기에 학교 인근 원룸을 알아보던 참이었지만, 그를 위한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상의도 없이 상경을 결정한 부분은 친부의 성정을 미루어 보아 넘어가야 했다. 아버지인 항상 그랬지. 그가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기숙사에서 계속 머무르기로 한 건 친부 때문이었다. 애초에 지난 3년을 고등학교에서 죽어라 공부에만 쏟아 부은 이유도 가족과 떨어지기 위해서였다. 재수도 못 시켜준대서 그래도 남들도 인정할 만한 대학에 아등바등 합격했는데, 그 인간이 오는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올해는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였다. 그거구나. 아들을 위해서. 대치동은 서울에 있고, 아들은 대학을 서울로 보내야 하니까. 남동생은 그의 합격 소식을 듣고도 축하하지 못했다.

“누나가 그런 텔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딸보다 못한 학벌을 가진 아들은 부모를 유능한 대변인으로 만든다. 딸은 그렇게 잘 왔는데, 아들은 어때? 으응, 아들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서. 애가 하고 싶다는 데 밀어줘야지. 그는 모친의 자매는 아니지만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이모라 불리는 사람과 모친이 나누는 대화를 들곤 했다. 생수병을 위아래로 흔들다가 시계를 보고 그는 편의점을 나왔다. 신호가 바뀌자 신나게 달리던 차들은 횡단보도 앞에 가지런히 늘어섰고, 그는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거리려도 길을 건너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도,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갈 곳이 없었다.

버스도 타지 않고 계속 걷다가 들어간 곳은 24시 운영 사우나였다. 마지막으로 찜질방에 온 게 언제였더라. 그는 온 가족이 찜질방에서 봤던 개표방송을 기억해냈다. 전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정지된 방송 화면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럼 십 년이 더 된 셈이었다. 기억. 가족들은 그의 기억력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지겨워. 입만 열면 옛날이야기를 반복한다고 그를 지겨워했다. 그도 잊고 싶었다. 남탕에서는 오히려 두고 온다는 수건처럼 나쁜 기억을 잃어버리기를 원했다.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어른을 이해할 만큼 자랐지만, 여전히 냉탕에서 놀던 아이를 눈으로 좇았다. 눈을 감으니 인형을 씻기러 대야에 물을 한가득 부어놓았던 아이가 수증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분홍색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온 찜질방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부부, 얼굴이 붉어진 중년 남성과 연속극을 시청하는 중장년 여성들이 여기저기 무리 지어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그곳에서 놓치고 그대로 커버린 미아가 된 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TV 앞에 앉은 무리에 끼어들려다가 발을 돌렸다. 사람들이 자주 눈길을 주지는 않지만, 너무 외지지 않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모친이 저걸 보고 있겠지 싶다가도 친부 눈치를 보느라 안방에도 못 들어갔을 상황도 가정했다. 그러다가 따뜻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볼 연말 시상식도 그려보았다. 지금 열연을 펼친 연기자는 제야의 종이 울리기 전에 ‘안방극장의 책임자’로 무대 위로 올라갈 터였다. 안방극장. 그 말이 무색하게 그는 TV가 안방에 들어간 꼴을 본 적이 없었다. TV는 항상 거실에 한가운데 놓였다. 이번 집만 아니라면. 그가 뛰쳐나온 그 집은 너무 좁았다. 너무 좁아서 도저히 거실에 TV를 둘 공간이 나지 않았다. 방이 두 개였기에 TV는 안방으로, 그는 거실에 살게 되었다. 안방에도 거대한 장롱이 들어찼고, 남동생은 한창 예민할 시기이므로 그는 방을 가질 수 없었다. 사춘기에는 쿵쿵 닫을 방문

이 필요하니까 누나가 양보해야 했다. 그도 한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도, 몇 년 뒤에 취직해 독립할 수 있으니 방은 남동생 차지였다.

사실 방 말고도 많은 것들이 남동생 차지였다. 회끄무레하게 지나가는 화면에서 눈을 돌렸다. 조부모까지 모여 사는 저런 큰 집은 없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없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이들도 모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 그런 집도, 그런 삶도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일가가 상경한 이후로 계속 답답했다. 집이 좁아 답답한 건지, 답답해서 집이 좁게 느껴졌던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못했다. 이미 작은 집이 갑갑하다는 모친의 울상이 집안에 가득해 그의 뒤통은 둘 곳이 없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남은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고 전원을 꺼야 할지 고민했다. 급한 마음에 보조배터리도, 충전기도 집에 두고 나왔다. 드라마가 끝나고 채널이 뉴스로 바뀌었는데도 모친에게서 연락을 오지 않았다.

뛰어다니는 남매를 부모가 맥반석 계란과 미숫가루로 앉혀두었다. 대충 끼니를 때웠던 그는 식혜라도 하나 사 마시려다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배터리만큼이나 걱정되는 액수였다. 귀가는 언제까지고 늦춰질 수 있었으나, 고집을 버티게 할 숫자는 정해져 있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됐다. 차마 끄지 못한 휴대폰 액정 위로 알림 몇 개가 도착했다. 학교 주변에 자취하는 동기였다. 언제든 자취방으로 놀러 오라는 말이 기억났다. 답장한 뒤 그는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을 동기에게 몇 분을 망설이다가 부탁했다.

-내일 네 자취방에서 자고 가도 돼?

화면을 켜다 끄지도 못한 채로 검은 창을 응시하고 있는데, 알림은 의외로 빨리 왔다.

-응? 당연히 되지.

-내일 몇 시에 올래?

이른 시간부터 잡아두는 것도 미안하고, 쓸 돈도 걱정되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보냈다. 집들이 기념으로 휴지라도 사가겠다는 말에 친구는 농담이라 여겼는지 그냥 하루 자고 가라고 했다. 그는 신난다고 쾅다가 지우고 활짝 웃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고마워.

전원을 꺼지는 동안 자신을 아까부터 힐끔거리는 남성 때문에 그는 자리를 옮겼다. 중년 여성 둘이 있는 한증막으로 들어가 그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리 딴 얘기가 흘러들어와도 머릿속이 개워지지 않았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사이의 정체 구간에서 잡음이 울렸다. 가족을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이 일으킨 접촉 사고가 각종 걱정과 고민의 추돌로 이어졌다. 얼굴은 모르겠으나 단점만은 잘 알게 된 대화 속 주요 인물은 알아서 다가와 박았다. 설익은 채로 바깥에 나온 그는 눈 붙일 장소를 찾았다. 그를 쳐다보던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는 적당한 자리에 베개를 가져와 누웠다. 주위에는 똑같은 분홍색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몇 있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팔짱을 끼고 눈을 붙이려 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졸음은 들어오지 못한 채 찜질방 입구에서 서성이는지, 아니면 소인, 대인어느 쪽에 속하는지 몰라 고민만 하는지 오질 않았다.

잠시 후 그의 옆에 누운 것은 한 남성이었다. 다른 자리가 없나. 왜 내 옆에 누웠지. 그는 불안을 빼고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을 간헐적으로 움직였고, 아직 잠에 완전히 들지 않은 티를 냈다. 눈을 내리깔고 불과 수건 틈새로 아까 그 남자인지를 살피보고 싶었지만, 파란색 반바지와 무성한 다리털이 들어왔다. 무서워. 소리 지를까.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해. 여기 말고 주변에 잘 곳은 있어? 돈은? 소리 질러봐라. 너만 미친년 되지. 신고?

신고도 못해서 집 나온 거잖아. 누가 너를 믿든? 엄마도 그러잖아. 괜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아빠에게 बारबार 대든다고. 달아날 잠도 없어서 그는 수건 한 장 아래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수건을 살짝 들어 올려 남자의 얼굴을 쫓아붙었다. 보이질 않아 인기척이 크게 다가왔을 뿐, 남자는 생각보다는 떨어져 자고 있었다. 아까 그 남자는 아닌 듯했다. 그는 일어나서 안전한 데 쫓겨앉았다. 부친도 코를 골았다. 코고는 소리는 방문 너머로도 들렸고, 그는 모친과 함께 거실에 누웠다. 일찍 잘 수 없었고, 늦게 일어날 수도 없었다. 남동생은 학원에서 늦게 돌아와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 새벽 6시 반에 일어나는 남동생에게 아침을 차려주려 모친은 6시부터 부산스러웠다. 부엌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 때문에 그는 다시 눈을 감으면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천장이 좁아졌고, 바닥 가까이 내려와서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벽에 걸린 커다란 전자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는 오전 네 시 삼 분이었고, 그게 그에게는 무척이나 낯설었다. 일곱. 일곱 시에 나가자.

비워둔 위장에서 역한 느낌이 올라왔고, 그는 이른 아침에 목욕탕에 몸을 담갔다. 아침 목욕을 오는 할머니들 등에는 부항 자국이 새파랗게 남아있었다. 그는 '신흥 조식 새벽 목욕탕'라고 속으로 킁킁거렸다. 었드린 모친의 등에 부항을 뜨는 일은 그의 몫이었다. 권총형 펌프를 따로 빼내서 가지고 놀다가 혼났던 일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린 시절 기억이 그 정도에만 머물렀으면 좋았겠지. 목욕탕을 나와 그는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걸치고, 바나나우유 한 개를 사 들고 거리로 나섰다.

2.

버스가 오는 정류장은 집 주변에 있었다. 평소에는 편하게 이용했으나, 그는 정류장에 서서 부친과 닮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당장이라도 총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손을 올린 친부가 뺨을 갈기려 달려들 것 같았다. 때리려던 거였어. 맞았을 거야. 그가 손에 든 가방으로 친부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면 그는 늘 그랬듯이 맞고 말았을 것이다. 중간에 끼어든 모친은 잘못했으니 어서 빌라며 그에게 종용했다. 친부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 그는 사과하지도, 빌지도 않았다.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벽이었다. 되려 신고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딸을 향해 친부는 기가 찬다는 듯이 말했다.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려 들어.”

버스 세 대가 연달아 정류장에 섰고, 그는 마지막 버스로 굳이 걸어갔다. 그가 아침을 거른 채로 탄 차는 어지럽게 신호가 바뀌는 사거리를 여러 번 거쳤다. 하필이면 출근길과 겹쳐서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는 다그치기보다는 상관없는 말을 섞어가며 상담하는 편이었다. 어른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하기란 드문 일이었고, 그는 가정사를 더 캐묻지 않고 원서를 모두 서울 소재 대학으로 써준 담임 교사에게 감사했다. 안전하게 지방 국립대를 하나 넣을 수도 있었으나, 그는 안전이라는 말이 생소했다. 통학은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충분했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버스는 그를 오전으로 데려다 놓고 급하게 출발했다. 이른 아침에 학교 앞 가게는 문을 열었거나, 그럴 준비로 바빴다. 문이 열리든, 닫히든 어차피 들어갈 수 없었다. 자리에 앉아서 쉴 만한 카페는 가장 싼 음료도 오천 원이 넘었으므로 그는 도서관에 갔다. 가파른 경사로 시험 기간에도 자주 찾지 않았던 도서관은 시간을 죽이기에 좋았다. 방학이어서 시험 기간은 생각도 못 할 만큼 한산했고, PC실에서 한 자리를 골라 앉았

다. 관심도 없는 스포츠난까지 가서 한화의 부진을 쓴 기사를 읽었다. 승리가 더 낫설 구단을 좋아하던 친구가 한 말을 떠올렸다.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우승하지 않을까?”

지금도 간간이 연락되는 초등학교 동창은 한화 이글스의 오랜 팬이었다. 어렸을 적 생각하던 어른은 아니었지만, 그가 술담배가 가능한 성인으로 자라는 동안, 한화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아직도 한화 팬일까. 십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만 응원할 수 있을까.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는 그에게 꾸준히 안부를 물어온 친구였다. 휴대폰을 켜서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 친구가 보고 싶어졌다.

-오랜만에 너 보고 싶다.

그는 친구가 바로 문자를 보고 연락하는 우연을 내심 기대했다. 배터리를 생각하면 전원을 누르는 게 맞았지만, 그냥 그대로 둔 채 여러 동영상을 전전했다. 이어폰도 없었기에 소리도 없이 개나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을 봤다. 눈에서 털 알레르기가 일어나려 할 때, 진동이 울렸다.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서둘러 도서관 바깥으로 나왔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울먹거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인적이 드문 도서관 뒷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 집을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친구는 잘 곳이 있냐고 물었고, 그는 오늘은 동기 자취방에서 잔다고 대답했다. 내일은….

“내일은 어디로 가려고?”

“나 대전 갈까?”

친구의 허락을 받을 일도, 그가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어딘가로 갈 수 있는 나이기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물었다. 모텔에서 잘 요량이면 서울이든 대전이든 다를 바 없었다. 그래도 대전에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초등학생 때 놀다가 자고 갔던 추억을 꺼낸 친구는 이번에도 그러라며 권유했다. 그는 그게 언제적 일이나고 농담할 겨를도 없이 그래도 되냐며 반문했다.

“당연히 되지. 부모님께 말해놓을게.”

내일은 대학 동기와 약속이 있으니 조금 늦게 봐도 괜찮겠냐는 물음에 그가 천천히 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통화는 끝났다. 해는 아직도 하늘 한가운데 떠서 저물어 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발길은 지난겨울까지 살았던 기숙사에 닿았고, 가로수는 겨울이 없었다는 듯이 푸른 잎을 흔들었다. 그는 낙엽 한 장 굴러다니지 않는 길 위에서 등을 돌렸다.

도서관에서 내려올 즈음에는 하늘 끝자락부터 저녁이 올라오고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을 동기를 멀리서 발견하고 서로 팔을 흔들었다. 그는 동기와 함께 수제 버거집에 들어가 버거를 하나씩 손에 들고 감자튀김을 나눠 먹었다. 도서관 매점에서 먹은 삼각김밥 하나 제외하면 제대로 먹는 끼니였다. 서울에 사는 그에게 동기는 방학에 학교 앞으로 올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배시시 웃으며 학기 중에는 바쁘게 자고 가는 게 영 아닌 것 같았다고 얼버무렸다. 서로 지난 학기의 조별과제나 강의를 얘기나 하다가 가게를 나왔다.

“내 방에 오면 한 가지 거쳐야 할 게 있어.”

동기는 자취방에 온 모든 손님이 겪은 거라며, 편의점에 들러 탄산수를 샀다. 탄산수를 서로 들겠다고 실랑이를 벌였고, 그는 페트병을 손에 쥔 채 동기를 따라갔다. 동기가 지내는 방은 남동생의 방보다 조금 큰 편이었다. 작은 세탁기가 싱크대 대각선 아래에 붙어있었고, 방 한구석에는 컵라면 용기가 비닐에 싸여있었다. 동기는 그에게서 탄산수 한 병을

받아들고 냉장고에서 레몬청을 꺼냈다. 냉장고는 달걀 몇 개를 빼면 거의 비어있었고, 냉동고도 얼음 말고는 든 게 없었다.

“아, 이거. 혼자 살면 뭘 사뉘도 썩혀서.”

재료를 사 와서 일 인분만 만들면 항상 남아버려서 한 끼 먹기가 어렵다, 혼자 먹고 말아서 뭔가 만들기가 귀찮다는 이야기를 그는 가만히 앉아 들었다. 동기는 레몬청을 큰 컵에 덜어내 탄산수와 섞어 그에게 내주었다. 그걸 마시는 게 관문이라고 덧붙였다. 얇게 썰린 레몬은 공기 방울에 둘러싸여 다시 바다로 돌아오면 물거품이 된다는 동화 속 당부를 떠올리게 했다. 표면 위로 올라와서 부서지는 거품을 바라보며 그는 레몬청의 출처가 궁금했다.

“엄마가 줬어. 근데 양이 많아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주고 있어.”

동근 컵을 절반 가까이 비워낼 즈음에서야 묘하게 동근 용기의 바나나우유가 상기되었다. 그는 흰 우유를 잘 마시지 않았지만, 여느 아이가 그렇듯이 색소가 함유된 우유는 좋아했다. 사우나 한쪽에서 파는 바나나우유는 뚱뚱한 모습에 더 특별해 보였다. 그의 모친은 사달라고 떼냈던 그에게 속삭였다.

“이런 데서 사면 비싸기만 해. 나가서 사줄게.”

막상 나가면 그를 기다리는 건 모녀보다 먼저 나온 친부와 남동생이었다. 남동생은 우유만큼이나 노란색 빨대를 물고 두 손에 꼭 들린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친은 동생은 어리고 기다리기 지쳐서 아빠가 사줬을 거라 말했다. 그는 모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까지 친부가 알았을 리 없다고, 모친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다. 실제로 모친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때 그가 몰랐던 사실 하나는 그도 어렸다는 것이었다.

동기는 여분의 이불을 꺼준 뒤 그와 돌아가면서 화장실에서 씻었다. 편의점에서 산 휴대용 칫솔을 가지고 그는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지난겨울에 대충 알아본 바로는 학교 앞 원룸은 결코 싼 편은 아니었다. 화장실은 그 가격이 무색하도록 좁았다. 웬만한 가정집 욕조보다 조금 큰 정도였는데, 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벽에 박치기할 듯이 아슬아슬했다. 방 자체가 불법으로 개조하면서 생긴 터라, 덩달아 화장실도 좁다는 설명에 그가 집주인 욕을 해도 되냐고 묻자 동기는 웃었다. 두 사람은 신나게 떠들다가 새벽 한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누웠다.

3.

열한 시에 일어난 두 사람은 바깥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그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에 탔다.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 속에서 그는 대전으로 가는 입석 표를 끊었다. 돈과 달리 시간은 남아돌았기에 두 시간 내내 서서 가는 일은 참을 수 있었다. 하릴없이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기는 이들은 없었다. 사람 구경에 질려 거대한 광고판을 둘러보다가 유명 인터넷 강의 강사의 얼굴이 크게 박힌 광고판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는 화면 너머에서만 본 저 사람을 남동생은 직접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친은 학교에서 그가 무얼 하든 오는지 몰랐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입시 요강 자료를 구해다 왔으므로. 부친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었다. 입시 전형이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아느냐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애를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자신에게는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전광판에는 한글과 영문 표기가 수시로 바뀌면서 그가 탈 기차 오른쪽에 ‘탑승대기’라는 글자가 표시됐다. 기차가 출발하고도 빈 좌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그는 문 옆에

섰다. 휴대폰을 다시 켜서 탑승권을 보여준 승무원을 빼면 마주한 사람은 없었다. 창문 너머로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고, 지하철 플랫폼이 더 보이지 않자 서울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됐다. 다른 승객이 지나가지 않으면 쪼그려 앉았다가도 다리가 저리면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대전으로 점점 다가갔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는 신탄진을 지나서야 다시 전원을 켜 알림을 확인했다. 친구는 대전에 도착했느냐고 문자를 보냈었고, 그는 거의 다 왔다고 답했다. 다른 이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는 없었다. 그와 같은 역에서 내릴 사람들이 객석 칸에서 하나둘 늘어나자 그는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다.

-목적교에서 보자.

기차에서 내려도 만나기로 한 시간이 멀었기에 지하상가를 거쳤다가 처음 보는 카페로 들어가 가장 싼 음료를 골랐다. 유리잔 밑부분에 깔린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동기하고 생각보다 일찍 헤어져서 그런데 지금 볼 수 있을까?

빈 잔에 얼음이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즈음에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목적교는 기억했던 그대로였다. 거인이 하다가 만 뜨개질 조각을 씌어놓은 다리. 정중앙에서 불경을 외우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나란히 설치된 벤치에는 드문드문 노숙자들이 누워 있었다. 바람은 행인과 노숙자를 가리지 않고 다리 위를 세차게 가로질렀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는 친구를 찾아 헤맸다. 건너편 인도에서 올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야아.”

바람 섞여 그를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다가왔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어릴 적과 변함없는 얼굴이었다.

“머리 염색했네? 잘 어울린다.”

왔던 길을 거쳐 대전역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안경원 앞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이 건물 뉴스에 나왔다.”

“여기가? 여기는 별다른 사고도 없었잖아.”

그는 친구의 말에서 그들이 멈춘 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자리한 웨딩홀을 읽어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오르던 새하얀 건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것인지 모를 양식으로 지어진 조악한 성에서 화재 사고가 한 번 났었다. 다음날 학교로 가니 모두 그 얘길 했었지.

“아냐, 사고 때문은 아니고. 이게 보기보다 엄청 오래된 거래.”

개미 더듬이처럼 외벽 끝에서 튀어나온 조명에 빛이 들어왔고, 점차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서 다시 걸었다.

“근대에 지어졌다는데, 무슨 은행 지점이었나 봐. 식산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들어갔던 것 같아. 동양척식주식회사랑 어감이 비슷했어.”

“여길 몇 번이나 지나다녔는데 난 몰랐어.”

“알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자주 다니는 곳일수록 더 그렇지.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우연히. 뉴스에 안 나왔다면 영영 몰랐을 거야.”

친구는 그가 몇 번이나 이사할 동안, 계속 같은 곳에서 살았다. 밤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한때 담쟁이덩굴이 외벽 전부를 차지한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것이나 홍도육교가 사라진 걸 눈치챘다. 친구는 부동산이 몰려 있던 골목에 지금은 큰 마트가 들어섰다고 알려주었다. 등교하기 전에 준비물을 사러 갔던 문구점도 호프집으로 바뀌었고,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 대부분이 이사 갔다는 소식도 접했다. 그는 많은 것들이 휘발된 풍경

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따라 들어선 친구의 집은 예전에 살았던 집과 비슷했다. 다른 가구로 채워졌을 뿐, 방문도 마루도 초등학생이었던 그가 기억하던 대로였다.

“머리가 짧아지셨네요.”

그를 맞아준 친구의 어머니는 긴 곱슬머리를 짧게 자른 지 몇 년은 되었다고 반응했다. 낯선 사람만 보면 짖어대던 검은 개 대신에 흰 개가 현관으로 다가와 그를 바라보았다. 친구는 저녁으로 치킨을 시켰고, 배달이 오기 전에 아까 말한 마트에서 콜라를 사기로 했다. 가는 길에 본 초등학교도, 상가 건물도 아파트 정문도 기억과는 조금씩 달랐다. 아니, 달라져 있었다. 콜라를 계산하기 전에 친구는 그에게 다른 게 필요하냐고 물었다.

“아냐, 없어. 괜찮아.”

거실에서 TV를 보며 들은 치킨을 먹고, 그는 친구에게서 실내복을 빌려서 침대에 누웠다. 이사하면서 버린 그의 침대는 마음 한편에 접어두고, 집을 나오게 된 일을 속삭였다.

“너 그때 일 기억나?”

“무슨 일.”

“네가 너무 속상했던 일.”

친부는 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남동생의 장난감 골프채가 부러지도록 딸을 때린 적이 있었다. 그걸 친구에게만 몰래 말했었다.

“어. 기억나.”

사과는 없었다. 친부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부셔서 미안하다며 그걸 박스테이프로 고쳐주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다시 그 일을 꺼내자, 친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런 건 없어. 우리 아빠는 그나마 식구들은 안 때리지만, 집안 물건을 부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이유 같은 건 없더라.”

화를 낸 원인은 있어도, 누군가가 맞아야 할 이유 같은 건 없다고 친구는 조곤조곤 말했다. 맞지 말고 맞서야 해. 맞서다가 도망가야 하면 언제든지 여기로 와.

“있잖아. 이번에는 남동생 때문이야. 개가 나한테 그랬거든.”

“뭐라고 했는데.”

“개가 거실 서랍에서 연고를 찾다가 바셀린을 만지작거리더니 나한테 그거 아느냐고 묻더라고. 바셀린은 고래기름 찌꺼기로 만드는데. 그게 나랑 똑같다는 거야.”

“....”

“누나도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누나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찌꺼기라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 그런데, 옆에서 엄마도 그걸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가 소리를 마구 지르니까 자기는 장난이었다고 내뺄는 거야. 장난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안방에서 나왔어.”

친구는 그의 친부가 안방에서 나온 이후를 묻지 않았다. 다음에 대전에 오면 또 자고 가. 고마워. 아냐, 잘 자. 너도. 규칙적인 숨소리를 옆에 두고 그는 천장을 오래도록 올려봤다. 어렸을 적보다 확실히 낮아진 천장을.

친구는 아침 9시에 일어났다. 그는 20분 정도 먼저 잤지만, 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늦은 아침을 먹고 친구가 집 앞 제과점으로 일하러 가기 전,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아르바이트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봐.”

제과점을 지나면서 나온 말이었다. 다른 알바 자리를 알아보려고. 나도 알바할까. 친부는 그에게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오라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을 작정이었다. 길 건너에서 오래된 성당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성당 뒤 초등학교와 맞은편 문방구, 그는 머릿속에서 약도를 그려냈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그가 타야 할 버스는 3분 남짓 기다려야 했다. 어서 가. 여기까지 바래다줘서 고마워. 아냐, 조심해서 가. 친구는 뒤 돌아 천천히 작아졌고, 친구가 한 점이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때였다. 고등학교 3학년 첫날에 담임 교사의 조희 말씀도 먼 기억 속에서 꺼려왔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다. 삼일마다 마음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 그는 전자레인지만도 못했지만,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사흘을 버텨서 언젠가 언젠가 완전히 나오리라고.